

# “美 유권자 10명 중 7명, 바이든 대선 포기해야”

### 여론조사 72% “대통령 직무 가능한 인지력 아냐” 바이든 고향 친구도 “나라 위해 물러나야할 시간”

미국 대선 후보 1차 TV토론을 계기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인지력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미국인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CBS는 유고브와 함께 TV토론 직후 지난달 28-29일 전국 등록 유권자 1천130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4.2%p)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로, 출마해야 한다(28%)는 응답을 압도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월 같은 기관 조사 때는 출마 반대 63%, 찬성 37%였다.

민주당 당원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출마 반대’(46%)보다 많긴 했지만, 출마 찬성이 반대를 64%대(후) 33%로 크게 압도했던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

또 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바이든이 대선후보로 지명돼야 하느냐’고 묻은 결과 59%는 ‘계속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고, 43%는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전체 조사대상 중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 건강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그렇다’는 응답(27%)을 압도했다.

지난 6월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5%, ‘그렇다’는 응답이 35%였다.

이번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 건강과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0%가 ‘그렇다’고 답했고 4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회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등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새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어린 시절 이웃 친구이자 오랜 지지자도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인·소설가이자 버몬트주의 미들버리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이 파리니는 미국 CNN방송에 “조에게,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



첫 TV 토론 참패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론이 가리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등 가족들이 캠프 데이비드(대통령 별장)로 향하고 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대선 레이스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연합뉴스

한 공개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라고 호소했다.

파리니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미국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턴에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이웃 친구이자 후원자다.

그는 “조, 당신은 진정한 사람

이다. 그리고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며 “나라와당을 위해 그렇게 해 달라. 사기꾼이자 협잡꾼인 트럼프가 또 다른 4년을 집권할 것이라는 위협은 실존적이다”고 강조했다.

파리니는 또한 “적수머 상원 원내대표, 하킵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 시전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의 말을 듣는 것은 조당신에게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대한 사람, 수십년간 우리가 그 행동을 보고 존경해온 그런 사람이 돼 달라. 당신의 위대한 최종 행동이 바로 당신 앞에 있다.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중 진출’ 日백화점 잇단 폐점  
소비부진·오염수 영향 매출 ↓

중국에 진출한 일본 백화점들이 매출액 감소로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중심부에 있던 ‘상하이메이롱진 이세탄’이 전날 폐점했다. 상하이 메이롱진 이세탄은 1993년 중국에 첫 지점을 개설한 일본 이세탄백화점이 1997년 개장했다. 이세탄백화점은 중국에서 한때 지점 6개를 운영했으나, 2022년 말 쓰촨성 청두 매장 2개를 닫은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텐진 지점 2개를 폐점했다. 상하이 지점까지 사업을 마치면서 이제 텐진에 3년 전 문을 연 1개만 남게 됐다.

홍콩 시가현 히코네시에 기반을 둔 헤이와도(平和堂)도 1988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후난성에서 한때 지점 4개를 운영했으나 지금은 1개로 줄었다.

일본 백화점이 이처럼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로는 중국 내 부동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인터넷 판매 확대 등이 꼽힌다. 아울러 도쿄전력 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일본 브랜드를 꺼리는 움직임이 생긴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백화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美 해군 특수부대 자살 대원들  
찾은 폭발음 노출 뇌 손상 만연

미 해군 특수부대 내비실 대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에게서 뇌 손상이 만연하게 나타난 사실을 미 국방부 산하 연구소가 발견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이 같은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해군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내비실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 메릴랜드주 베테스다에 있는 국방부 산하 연구소는 2019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전직 내비실 출신 데이비드 메갈프 대위의 뇌 조직에서 일반적인 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상 패턴을 발견했다.

해당 패턴은 강한 폭발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의 뇌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었으며, 폭발음 노출의 대부분은 메갈프 대위 본인의 개인 회기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내비실 복무 도중 혹은 복무를 마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최소 10여명이 있었다. /연합뉴스

# 특공(特供) 마오타이, 中 단속 결과 ‘모두 가짜’

### ‘軍中마오타이’ 상표 주의보... 中 ‘특별·전용 공급’ 라벨 사용 금지

중국 공안부가 술 포장지에 ‘특별공급’ 또는 ‘특별공급’ 라벨과 함께 인민해방군이 만든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한 마오타이주가 모두 가짜로 판명됐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일 보도했다.

차이신은 해당 술에 ‘중군(軍中)마오타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안부는 지난 4월부터 가짜 마오타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달 12일 권중마오타이 등 가짜 술 제조·유통·판매업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마오타이는 중국에서 국주(國酒)로

여겨질 만큼 최고 명주로 통하지만, 유명세만큼 짝퉁도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오타이가 즐겨 마신 마오타이는 중국에서 국민 만찬은 물론 기업과 개인의 각종 축하 행사에서 소비되며 공무원 접대용 또는 뇌물로도 많이 오간다.

여타 중국 고량주와 마찬가지로 수수를 주원료로 만드는 마오타이는 수수를 9번 찌고 8번 누룩을 넣어 발효하고 7번을 증류해 받아내는 복잡한 공정이 많이 가는 탓에 비싸다. 만들어진 지 오래될수록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뛴다.

2000년대 초반 저가형 마오타이도 출시됐지만, 현재 마오타이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53도짜리 페이텐(飛天)의 시중 판매가격은 500ml 도매가가 지난달 2천200위안(약 41만7천원) 수준일 정도로 비싸다. 그런데도 시중에서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탓에 고수익을 노린 이른바 짝퉁이 판친다. 늘 단속해도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다.

짝퉁 제조업자들은 마오타이 병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실제 내용물을 빼내고 여타 다른 술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 유통하기도 하며, 그렇지 않고 마오타이 병에 원액을 흉내 내어 만든 술을 채워 제조한 가짜 마오타이를 팔기도 한다.



가짜 마오타이 알수해 살펴보는 중국 공안.

특히 마오타이는 국공내전 당시부터 인민해방군이 애용하면서 제조해왔던 점에 착안해 이른바 군납이라고 속인 짝퉁이 중국 사회에 자주 유통된다.

군납 짝퉁이 횡행하자 2022년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나서 인민해방군의

명칭을 사용한 상업적 마케팅과 홍보를 엄격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도 ‘특별공급’, ‘전용공급’ 등의 라벨을 붙인 주류 생산·판매를 금지했다고 차이신은 소개했다.

/연합뉴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